

# 무료로 지재권 서비스 이용한다

많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월 4일 고가의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개인 등을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내년 2~3월경 서울 지역에 시범 설치되고 성과를 파악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특허 상담센터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리사를 상담요원으로 선발·배치하고 선행기술 검색, 출원서류 작성 및 상담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창

업 예비자 등도 무료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매년 30만건이 넘는 특허·실용신안 등이 출원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인(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20%에 이르고 있다. 또 전국 31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비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도 약 4만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제주의 경우 등록 변리사가 1명도 없고 20명 이하인 광역자치단체도 6개에 이르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3명의 상근 변리사를 배치하고 3명은 전국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 순회 상담을 하게 된다'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특허청,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금 인상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처분 보상금의 규모를 현행 30%에서 내년 1월부터는 50%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보상금 수준을 맞추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허청이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1백85건에 1억1천8백만원이며 올해는 9월말까지 1백47건에 8천5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의 이번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금 인상에 관한 시행으로 공무원 직무 발명이 지금까지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24시간 논스톱 전자출원 서비스

2005년부터 24시간 논스톱 전자출원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현재 기관 업무시간 대에만 지원하던 전자출원 서비스 시간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야간 시간대는 물론 공휴일로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선 내년 2월 초부터 현행 서비스 시간(08:30~20:00)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부터 서비스 시간대를 공휴일까지로 확대해 24시간 논스톱 전자출원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민원인 편의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시·공간 제약 없이 외국과 실시간으로 전자 문서 교환이 가능해져 특허 행정 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강에 좋은 먹거리 고르기

현대인들은 음료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도 생각없이 먹지 않는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한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고른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닥친 웰빙 바람은 이같은 먹거리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먹거리에서 웰빙 바람은 다양하다. 음료, 제과, 유제품, 두부, 콩나물, 면류, 죽제품, 밥제품, 와인, 간장, 채소, 양념장, 빵 등 모든 제품 영역에서 웰빙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제조사 간에서도 누가 더 질 좋은 웰빙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미노센스(한국야쿠르트) 등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면 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분다**  
손쉽게 한끼 식사거리로 먹을 수 있는 생면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생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하는 여성 직장인은 물론 생활에 바쁜 남성 직장인에게도 인기가 있다. 시장 규모도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나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과와 음료, 웰빙 경쟁 가장 치열**  
웰빙 바람이 불어오면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즐겨찾던 탄산음료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

대신 100% 과일 음료와 식이 음료, 아미노산 음료 등 건강 음료들이 잘 팔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이어트용 웰빙 음료가 인기 리스트에 등장하고 있다. CJ의 팻다운은 대표적인 여성 건강음료로 잘 알려져 있다.

**유제품 업계도 웰빙으로 승부**  
우유 부문에서는 현미우유와 녹차우유, 검정콩우유 등이 잇따라 등장해 우유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식이 음료 부분에는 제약회사와 음료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아미노산 음료는 해태음료의 '아미노업'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미노밸류(동아오츠카), 아미노플러스마이너스(롯데칠성음료), 아

발효유 부문에서는 한국야구르트가 위 건강에 초점을 맞춘 '월'을 판매한 후 최근 간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신제품 쿠퍼스를 출시, 월의 대박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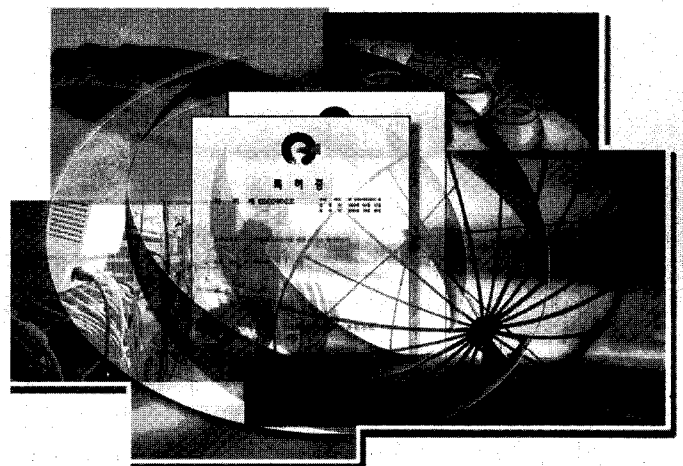
Pay attention to the patent information, be free from your competitors!

# “한국특허정보원은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특허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신명기술조사 서비스
- 특허 map작성 서비스
- TPDB(Topical Patent Database)서비스
- 정보가공 서비스
- 상표조사 서비스
- 기술가지명가 서비스
- IP컨설팅
- KIPRI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특허청 신명기술조사 업무수행
-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수행
- 특허청 데이터관리 센터 운영
- KPA(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사업수행
-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운영
- 특허청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 한국특허정보원, ISO 9001 획득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2004년 제6회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1월 18일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품질경영기법을 도입, 전사적으로 적용해 온 특허정보원은 만 1년여 만에 국내외 지적재산 및 기술 정보의 조사·분석·관리 등 서비스 전 부문에 대해 ISO 인증을 획득, 특허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유영기 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빛 내는 야간용 배드민턴 공, 특허출원

끝부분에서 빛이 나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공이 나왔다. 리텍(www.반딧공이.com/대표 이정규)은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내장된 리튬전지 램프를 켤 수 있어 야간에도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공(제품명 반딧공이)을 내놨다.

이정규 대표는 '배드민턴 공은 작고 가벼워 야간에 특히 보기 힘들었다'며 '어두워도 중간에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은 고휘도 LED 램프를 채택해 야간에 잘 보이고 고성능 리튬전지를 채택해 전구 수명이 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램프에 충격 완화 장치를 해 배드민턴 라켓의 강한 충격에도 전구가 잘 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고탄력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 공에 무게감이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도 공이 제 경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우수하고 제품이 견고해 깃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 스위치가 깃털 내부에 내장돼 있어 조작이 간단하고 운동 중 스위치가 꺼지거나 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공은 특허를 출원해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대기업 '휴면 특허기술' 중기 활용사업 추진

재계와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보유 특허기술 중 상용화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기술'을 중소기업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휴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양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의 최근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 활용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삼성·LG 등 대기업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 '휴면 특허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휴면 특허의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 특허기술 중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선별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독점사용권을 제공하고, 대신 대기업은 해당 특허의 가치평가 금액 일부를 기부자산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며 대기업도 특허유지 비용 절감 및 세계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볼 전망이다.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 200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 보유건수는 평균 482.4건이며 이중 사업화된 특허는 21.9%에 그쳐, 대부분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 세계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기업의 휴면 특허기술 이전시 세계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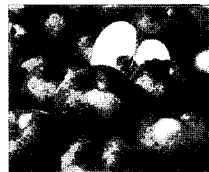


# 먹으면서 하는 '과일 다이어트'

과일은 주식이라기 보다는 디저트로 사랑을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디저트까지 먹어가며 살을 뺀다는 것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테지만 맛을 즐기면서도 가볍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과일 다이어트는 이러한 상식을 보기 좋게 빚겨간다. 먹어가며 다이어트가 된다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

## 사과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중 대표적인 것으로 3일 동안 사과만을 먹어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다.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정장 작용이 있어서 변비나 설사에 효과가 크다. 또한 칼륨은 신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므로 체내에 쌓인 쓸데없는 염분이나 수분을 배설하게 해준다. 물론 과일이므로 당연히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C는 피부에도 좋아 일거양득.



### • 방법

사과를 배고플 때마다 수시로 먹는다. 하루에 대략 5~8개씩 먹는데 그 이상도 상관없다. 마지막 날인 3일째 밤과 다음날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1큰술 정도 먹는다. 올리브 오일은 사과 다이어트를 해서 배설하기 좋게 된 독소가 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은 물론 공복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모든 다이어트가 그렇지만 사과 다이어트도 한 번에 3일 이상 해서는 안된다.

## 파인애플 다이어트

과육이 단단하고 특 쏘는 향기와 달콤한 맛이 일품인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 그리고 칼슘, 포도당 등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도 체내 영양 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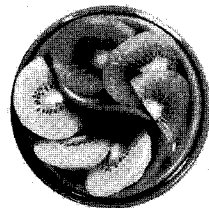
### • 방법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물을 한잔 마신다. 끼니마다 정해진 분량의

파인애플을 먹는다. 공복 시에는 수시로 물을 마신다. 다이어트 도중 차 종류는 마셔도 되지만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 음료는 삼가도록 하고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너무 많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3일간 파인애플만 먹고 4일째부터 먹는 일반식은 반드시 죽과 같은 자극이 없는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7일 이상의 보식 기간을 가진 후 일반식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 키위 다이어트

키위 다이어트는 사과다이어트, 파인애플 다이어트와 같이 과일을 끼니 대신 먹는 방법과는 달리 세 끼 식사를 모두 먹으며 간식으로 키위를 먹는 것이다. 키가 솔깃해지는 다이어트가 아닐 수 없다. 키위 다이어트의 장점은 처절하게 굶어야 하는 고통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키위는 오렌지보다 비타민 C 함유량이 2배나 많고 미네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 반면 칼로리는 적어 효율적으로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 • 방법

아침은 보리, 흑미 등 각종 밥을 중심으로 하고 간식으로 키위 주스나 키위 요쿠르트를 먹는다. 점심은 짜지 않은 반찬으로 된 백반류를 먹고 평소 양의 반만 섭취한 뒤 키위 1개를 후식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된다. 저녁은 7시 이전에 먹도록 하고 반공기 정도의 밥과 기름지지 않은 반찬을 먹는다. 밤에 허기질 때는 키위를 반으로 잘라 떠먹도록.

# 미래를 바꿀 10가지 발명품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우리의 미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발명품 10가지를 소개했다.

- 1. 인조 다이아몬드**  
공업용으로 쓰이는 인조다이아몬드의 품질을 높이면 그대로 보석으로 바뀐다. 또한 실리콘을 대체할 반도체 재료와 발광다이오드(LED), 평면디스플레이, 고화질 텔레비전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 2. 초파리 로봇**  
1km 밖에서도 식초나 과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후각을 탐지센서로 이용한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초미니 로봇의 동작에 응용한다.
- 3. 세포 프로그래밍**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조합한 후 살아있는 세균에 주입해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낸다. 인간 줄기세포의 능력을 프로그램 하면 뼈나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를 주문 생산할 수 있다.
- 4. 우주 엘리베이터**  
1991년 일본 과학자들이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하면서 희망이 생겼다. 로켓을 발사하지 않고 우주까지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6만2천마일 길이의 우주 케이블 속을 시속 200km의 속도로 움직인다.
- 5. 컴퓨터 운행 자동차**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할 컴퓨터 차량이 등장할 전망이다. BMW와 다이머크라이슬러, GM 등은 이미 초기모델을 만들었다.
- 6. 기억의 이식**  
뇌의 기억기능을 대신하는 컴퓨터 칩을 만든다.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프랑스어나 양자역학, F-16기 조종법 등을 쉽게 익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 7. 우주 식물**  
식물씨앗과 묘목들을 우주선에 실어 보냈다가 지구로 되돌아오면 DNA 구조가 바뀐다. 야구배트만한 오이,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이 27%나 많이 함유된 토마토, 더 길고 유연한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목화 등 신종종이 나온다.
- 8. 플라스틱 칩**  
실리콘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LED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이미 성공했다. 더 가볍고 값싼 차세대 전자회로는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포장상자, 말하는 광고판 등으로 활용된다.
- 9. 초경량 자동차**  
강철 자동차는 연료의 99%를 차체 자체를 운반하는 데 쓰고 있다. 탄소 섬유 재질로 차체를 만들면 현재의 절반 무게로 두 배의 연비를 낼 수 있다.
- 10. 수륙양용 주택**  
나무로 만든 집에 콘크리트 지하실을 설치하면 무게 중심이 안정적인 배 역할을 할 수 있다. 극지방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2050년께에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